

# 주일가정예배

[대림절 둘째 주]

2021년 12월 5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 인도자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1-2)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두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촛불을 생각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 주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서 빠져나와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처럼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287장 ..... 다같이

1. 예수 앞에 나오면 죄하삼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후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2.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3.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창세기 3:14-21 ..... 인도자**

-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흠을 먹을지니라
-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 19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1)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설 교 ..... 『인류의 회복자, 성자를 찬미하라』 ..... 인도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488장 ..... 다같이**

1.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후렴>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2.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3.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뵈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인류의 회복자 성자를 찬미하라

창세기 3:14-21

잉글랜드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1년간 외면했던 의회를 소집했을 때, 왕당파와 의회파 간에 내전이 일어났다. 1640년 청교도 혁명이다. 크롬웰이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는데 그의 사후 왕정이 복귀되었고 청교도들은 박해를 받았다. 사실 청교도는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전통을 무시했고, 선민의식으로 다른 신앙 색채를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극단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일치를 주장함으로써 반감과 역효과를 불러왔다. ▶ 존 밀턴은 크롬웰 정권에서 외국어 장관직을 맡아 이상 국가를 세워보려고 했지만, 공화정의 붕괴 후 정치적인 고난을 받았고 개인적인 환란을 겪었다. 하지만 밀턴의 위기는 기회가 되어 <실낙원>을 저술하게 되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싸워야 할 적은 왕당파가 아니라 사탄과 마귀와 맘몬의 추종자들이라는 점이다. 정치개혁보다 신앙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 <실낙원>은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을 바탕으로 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비참한 패배를 당한 사탄(루시퍼)과 추종자들이 하늘로부터 추방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는 태초 이전의 천상 사건이다. ‘공허’, ‘혼돈’, ‘흑암’의 상태다(창1:2). 타락 후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유혹하여 자기편으로 만든 다음 하나님께 복수하자고 모의한다. 에덴에 살던 인간은 그 뱀에 의해 타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지로 알고 계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다. 다만 사탄과 달리 인간은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기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로 결심하신다. ▶한편 천상회의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가 나누는 대화 기록되어 있다. 성자가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희생양으로 나서려 하신다. 타락한 인간들을 위한 구원자로 성자가 자발적으로 희생을 제안하자, 천사들은 성자의 영광과 궁극적 승리를 송축한다. ▶이제 실제로 타락 사건이 발생한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낙원에 침투하여 ‘여왕’ ‘아름다움’ ‘조물주와 흡사한 어여쁜 자’라고 부르면서 하와를 유혹한다. 뱀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창3:1)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며(3:3), 뱀은 거짓 확신을 심어준다(3:5).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간된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다. 아담은 놀라지만 하와를 사랑하기에 공범자가 된다. 천지는 탄식하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난한다. 하늘에서 인간의 타락이 발표되고, 죄와 죽음은 지옥의 문을 떠나 지옥과 지구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으며 지상을 향해 간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책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며 서로 화해한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화해 장면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회복의 요인은 겸손한 참회와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기도의 힘이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의 회개를 확인한 성자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하나님은 회개는 받아들이지만,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신다. 천사 미카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담에게 알려준다. 대홍수, 타락한 인류 문명, 인간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 그가 받을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말한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가능성과 선택, 개인의 책임이 강조된다.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제2의 하와)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여호수아)라고 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 율법의 통치는 끝나고 약속의 땅에는 믿음의 법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려준다. 이렇게 예수는 사탄의 권세를 분쇄한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3:15). <실낙원>은 비극적 서사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새로운 낙원의 회복을 그리고 있다.